

2025.10.29

주간 제 446 호



중국창업

WEEKLY 뉴스 | CHINA 창업 | KIC 뉴스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전화:+86-10-6780-8840

센터장: 김종문
메일문의: info@kicchina.org

목록

WEEKLY 뉴스

중국 경제 3Q 핵심 지표 현황	P1
CATL '초콜릿 배터리 교환소' 700 곳 완공, 연내 1,000 곳 목표	P2
中 연구팀, 세계 최초 서브옹스트롬 스냅샷 분광 이미징 칩 '위형' 개발 성공	P3
中 유니트리 '사람 얼굴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H2 공개	P4

CHINA 창업

[산업분석] 중국, 생성형 AI 이용자 규모 두 배로 확대	P5
[기업분석] 딥시크, '시각적 압축' 기반의 신규 모델 오픈소스로 공개	P8
[기업분석] 유비텍(UBTECH) 적자 탈출 난항, R&D 투자 부담에 자금난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앞두고 '수익성 시험대' 올라	P13
[지역소개] 포양후 국가자주혁신시범구	P17

KIC 뉴스

2025 한중혁신산업기술컨퍼런스 난징에서 개최	P19
KIC 중국 GSF 포럼 개최	P21
China·夢 China·路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행사 모집 공고	P22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P23
------------------	-----

주간 중국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출처를 기재해주십시오.

WEEKLY 뉴스

■ 중국 경제 3Q 핵심 지표 현황

지난 10 월 20 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 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1조 5,036 억 위안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했다. 여러 주요 지표들은 중국 경제가 대내외 압력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과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고용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신성장 동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민생 보장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회복 탄력성과 활력이 한층 뚜렷해진 모습이다.

도표 1. 산업별 GDP 현황

구분	부가가치	성장률	경제 성장 기여율
1 차 산업	58,061 亿元	3.8%	4.7%
2 차 산업	364,020 亿元	4.9%	34.6%
3 차 산업	592,955 亿元	5.4%	60.7%

농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축산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올해 1~3 분기 농업(작물 재배 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산업 생산은 빠른 확장세를 보였고, 특히 장비 제조업과 첨단기술 제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전국의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그중 장비 제조업은 9.7%, 첨단기술 제조업은 9.6% 늘어나 전체 산업 평균보다 각각 3.5%p, 3.4%p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에너지 구조도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1~3 분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에너지 소비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7%p 상승했다. 전력 구조의 녹색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올해 1~3 분기, 규모 이상 산업 부문에서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35.3%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p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첨단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1~3 분기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세부 업종 별로 보면,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이 11.2%,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9.2%, 교통·물류·우편업이 5.8%, 도·소매업이 5.6% 각각 증가했다.

소비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서비스 관련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1~3 분기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36 조 5,877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구환신(以旧换新, 소비재 교체 촉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같은 기간 규모 이상 기업의 가구 판매는 21.3%, 가전·음향기기류와 문화·사무용품류는 각각 25.3%, 19.9% 늘어났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완만한 조정을 보였고, 제조업 투자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1~3 분기 전국 고정자산 투자(농가 제외)는 37조 1,535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제외하면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3.0% 증가했다.

물가 측면에서는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생산자 물가 하락폭은 점차 축소되었다. 올해 1~3 분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0.6% 상승해 상반기보다 0.2%p 확대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도시 실업률은 다소 하락했다. 올해 1~3 분기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 평균치는 5.2%로 집계되었다.

주민 소득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3 분기 농촌 주민의 소득 증가율이 도시 지역을 상회했으며, 전국 주민 1 인당 가치분소득은 3 만 2,509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명목 기준은 5.1%,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 기준은 5.2% 증가했다.(출처: 징지르보)

■ CATL '초콜릿 배터리 교환소' 700 곳 완공, 연내 1,000 곳 목표

10 월 21 일, 산둥성 지난(济南) 하이테크 한위진구(汉峪金谷) 초콜릿 교환소 완공을 기점으로, 전국의 초콜릿 교환소 수가 700 곳을 돌파했다. 현재 CATL(닝더스다이·宁德时代)의 초콜릿 교환소는 전국 39 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충칭(重庆), 선전(深圳), 낭보(宁波), 허페이(合肥), 칭다오(青岛), 지난(济南) 등 11 개 도시에는 '도심 내 10 분 거리마다 교환소를 설치해, 99 초 만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 프리존(Free Zone)이 구축된 상태다. 4 분기에는 연내 '초콜릿 교환소 1,000 곳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밀도가 높고, 커버리지가 넓으며, 이용 경험이 우수한 교환 네트워크 구축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초콜릿 교환소는 주요 도시권 중심으로 본격적인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장강삼각주 지역에는 179 곳(상하이, 항저우, 우시, 쑤저우, 허페이 등)이 구축되었으며, 지역 경제의 발달을 바탕으로 현(县) 단위까지 확장 중이다.

쓰촨·충칭 지역에는 123 곳이 설치되었으며, 특히 충칭은 주요 도심 전역을 완전히 커버하고, 위베이구(渝北区)에만 15 곳이 밀집해 서부 지역의 고품질 에너지 충전 시범구로 자리매김했다.

징진지(京津冀) 도시군에는 121 곳이 구축되며, 수도경제권 교환 네트워크 전면 확장을 추진 중이다. 대만구(大湾区)에도 116 곳이 구축되었으며, 광저우, 선전 등 7 개 도시를 포함한 교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촘촘해지고 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구축 속도는 업계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기존 업계에서는 교환소 1,000 곳을 설치하는 데 4년 이상이 걸렸지만, 초콜릿 교환소는 첫 개설 후 1년 만에 1,000 곳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ATL은 2026년까지 전국 120개 이상 도시에 교환소 2,500 곳 이상을 구축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전국형 교환 인프라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출처: 평황망)

(‘초콜릿 배터리 교환소’란 CATL이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으로, 차량이 교환소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배터리를 분리·교체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존 충전 방식보다 더 빠르게 100%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어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中 연구팀, 세계 최초 서브옹스트롬 스냅샷 분광 이미징 칩 ‘위형’ 개발 성공

칭화대학교 전자공학과(清华大学电子工程系) 팡루(方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최근 세계 최초의 서브옹스트롬 스냅샷 분광 이미징 칩인 ‘위형(玉衡)’ 개발에 성공하며 지능형 광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이 성과는 중국의 광자 기술이 고정밀 영상 측정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관련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그동안 기존 분광 측정 기술은 분광 채집 방식과 고정된 구조의 한계로 인해, 분광 해상도와 영상 처리량 간의 구조적 상충 관계라는 난제를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지능형 광자 원리에 기반해 재구성 가능한 계산광학 영상 아키텍처를 새롭게 제안했으며, 기존의 물리적 분광 방식에 따른 한계를 광자 변조와 계산 복원 과정으로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팀은 랜덤 간섭 마스크와 니오베이트 소재의 전기광학 재구성 기술을 결합해, 고차원 분광 변조와 고속 신호 복조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계산 프로세스를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형(玉衡)’ 칩을 개발하였다. 약 2cm × 2cm × 0.5cm 크기의 이 칩은 400~1000nm에 이르는 광대역 스펙트럼 범위에서 서브옹스트롬 수준의 분광 분해능과 수십만 화소의 공간 분해능을 동시에 구현한 스냅샷 분광 이미징을 실현했다. 한 번의 스냅샷으로 전체 스펙트럼과 전 공간 정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약 100 배 향상된 해상도를 달성했다. 이로써, 분광 분해능과 영상 처리량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오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고해상도 분광 이미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위형(玉衡)’은 분광 이미징 시스템의 분해능, 효율성, 그리고 집적도의 한계를 모두 극복한 혁신적 성과로 평가되며, 향후 기계지능, 항공·위성 원격탐사, 천문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응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천문 관측에서 이 칩은 초당 거의 1만 개에 달하는 별의 스펙트럼 전체를 포착할 수 있어, 은하수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을 관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수천 년에서 10 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소형화된 설계 덕분에 위성에도 탑재될 수 있어, 전례 없는 수준의 우주 스펙트럼 지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중궈커지망)

■ 中 유니트리 '사람 얼굴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H2 공개

10 월 20 일, 중국 유니트리(宇树科技, Unitree)가 바이오닉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H2'를 발표했다. H2 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사람을 닮은 얼굴을 가졌다는 점이다.

H2 는 유니트리의 네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로 높이 180cm, 무게 약 70kg 이다. 2023년 출시된 H1 과 비교하면 높이는 같지만, 무게가 약 23kg 늘었다. 또 움직이는 정도를 좌우하는 관절이 이전 모델보다 크게 늘어난 31 개를 갖춰 좀 더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H2 는 발레, 무술, 캐워크 등 다양한 스포츠 기술을 선보였는데, 특히 연속 회전과 사이드킥 등 비교적 난이도 높은 동작을 선보였다. 눈에 띠는 기계적 잼은 없었고, 동작 연결도 비교적 자연스러워 유연하고 안정적인 동작 제어 능력을 보여주었다.

눈, 코, 입이 뚜렷한 형태를 갖춘 얼굴도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유니트리가 출시한 로봇 가운데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과 유사하게 제작되었다. 유니트리는 H2 의 제품 디자인 컨셉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니트리는 다양한 모델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며, H1, G1, R1 의 세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했다. H2 가 출시되면서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은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H2 의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H2 의 높이와 무게가 성인에 가깝고 민첩성과 우아함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과학 연구, 상호작용, 서비스 등의 시나리오를 타겟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출처: 신랑망)

참고자료

- ▶ 징지르보(经济日报). 중국 3 분기 경제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https://mp.weixin.qq.com/s?__biz=MjM5NjEyMzYxMg==&mid=2657763892&idx=1&sn=054aff736a55130e68bd37961e29f5db&chksm=bc521a5c95c76ff6556408adfe6abba604e16d689179095d17af7302fb40f830e10e86e70d92&scen=27

- ▶ 평황망(凤凰网). CATL '초콜릿 배터리 교환소' 700 곳 완공, 연내 1,000 곳 목표

<https://tech.ifeng.com/c/8ndGueo29mG>

- ▶ 중궈커지망(中国科技网). 세계 최초 서브옹스트롬 스냅샷 분광 이미징 칩 '위험' 출시

https://www.stdaily.com/web/gdxw/2025-10/16/content_415897.html

- ▶ 신랑망(新浪网). "I.Robot"의 현실 버전!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 'H2' 발표, 높이 180cm, 발레를 출 수 있음

<https://finance.sina.com.cn/roll/2025-10-20/doc-infurawx9248017.shtml>

CHINA 창업

[산업분석] 중국, 생성형 AI 이용자 규모 두 배로 확대

10 월 18 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CNNIC)는 '2025년 (제 6회) 중국인터넷 기초자원대회(2025(第六届)中国互联网基础资源大会)'에서 <생성형 AI 응용 발전 보고서(2025)(生成式人工智能应用发展报告(2025))>를 공식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은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전환을 이끄는 핵심 전략 기술로 부상하며, 인류의 생산 방식과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025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는 '인공지능 플러스(AI+)' 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명시했으며, 이어 8월에는 <국무원의 'AI+' 심층 추진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深入实施"人工智能+"行动的意见)>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제조 경쟁력과 시장 역량에 결합시켜, 대형언어모델(LLM)가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 방안(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 <국가 AI 산업 종합표준화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国家人工智能产业综合标准化体系建设指南)>,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人工智能安全治理框架)> 등 관련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며, AI 기술과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용자 확산-산업 발전-대표 사례-발전 환경'이라는 분석 틀을 바탕으로, 중국 내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 현황, 산업 적용 사례,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 중국 및 해외 산업기관, 전문가 및 학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중국과 글로벌 생성형 AI의 발전 현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 생성형 AI 산업의 전반적 발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이용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2025년 6월 기준, 중국의 생성형 AI 이용자 수는 5.15억 명으로, 2024년 12월 대비 2.66억 명 증가하며,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보급률은 36.5%로, 2024년 12월 대비 18.8%p 상승하였다.

둘째, 논리 추론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자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면서, AI가 실제 환경에서 복잡한 과제를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는 생성형 AI의 논리추론 성능 향상을 가속화 시켰으며, 그 결과 모델의 파라미터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아키텍처 설계는 고도화되었으며, 데이터 품질 또한 개선되고 있다.

셋째, 멀티모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멀티 모달 데이터를 이해, 생성, 조정하는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국의 국산 모델들은 의미 이해, 동적 품질, 시각적 완성도 등 콘텐츠 생성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나 영상 등 다양한 모달 정보를 바탕으로,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모델 추론 비용이 크게 낮아졌다. AI 모델의 추론 비용 절감은 생성형 AI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모델의 시스템 추론 비용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약 280 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형 모델의 대중화와 산업 응용 확산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다섯째, 경량화 모델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생성형 AI 기업들은 주력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 하는 한편, 여러 환경에서 응용 가능한 경량형 모델 연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업체 뿐 아니라, 해외 업체들 역시 비용이 낮고 배포가 간편한 경량화 솔루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중국 내 생성형 AI 이용자들의 활용 현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주요 활용 분야를 보면, 생성형 AI 제품은 주로 질의 응답, 일반 사무 업무,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창작(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질문 응답 용도로 사용하는 이용자가 전체의 80.9%로 가장 많았고, 텍스트 생성 및 편집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36.0%, 이미지나 영상 생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33.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생성형 AI의 주요 이용자층은 중·저연령대(10~4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9 세 이하 이용자 가 3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9 세가 21.0%, 30~39 세가 19.8%, 40 세 이상이 총 25.4%를 차지했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29.8%, 대학교 졸업 이상이 28.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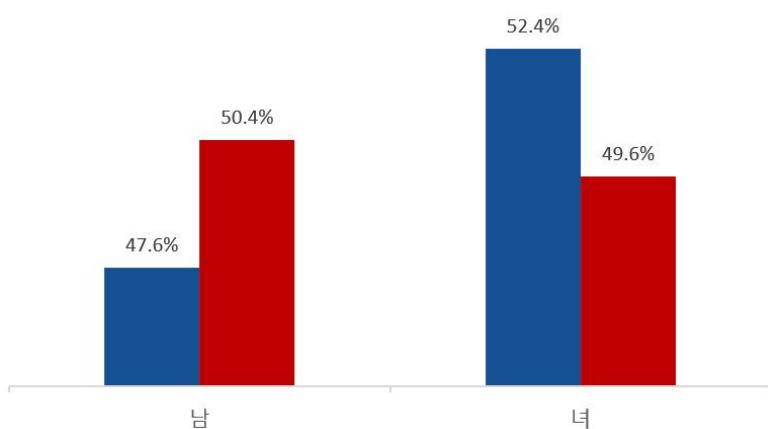


그림 1. 생성형 AI 이용자 성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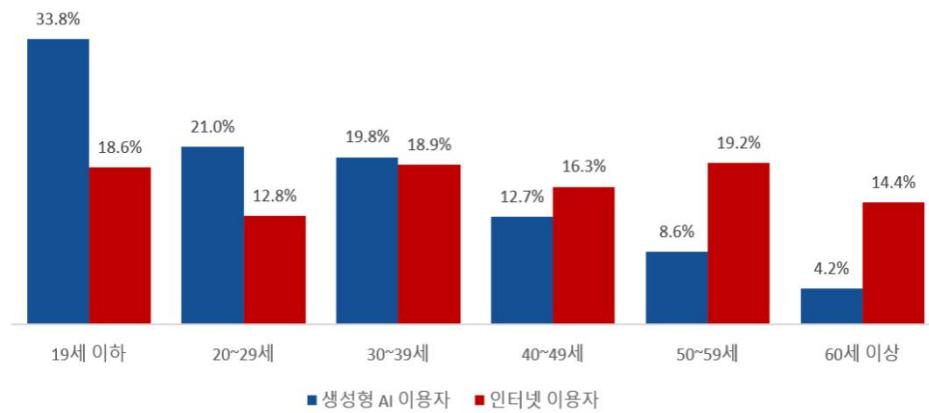


그림 2. 생성형 AI 이용자 연령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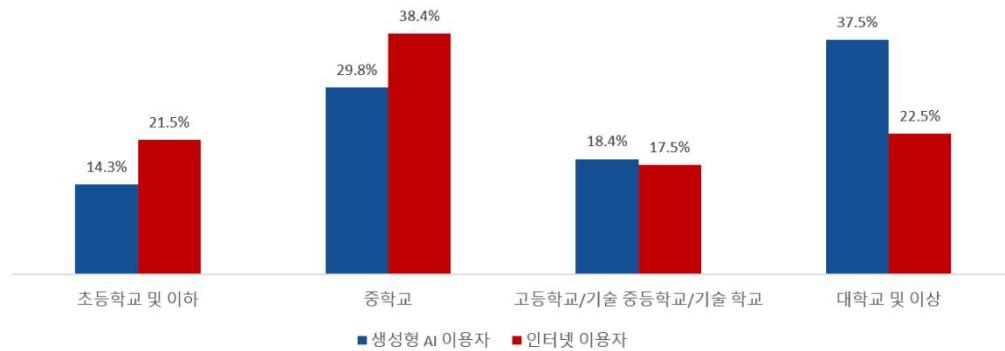


그림 3. 생성형 AI 이용자 교육 수준별 구조

동 <보고서>는 향후 생성형 AI의 발전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모델 통합을 통해 AI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기술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체화지능 AI가 완전히 새로운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지능형 에이전트로 AI 지능의 새로운 경계가 확장될 것이다. 다섯째, AI 거버넌스의 고도화가 AI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앞으로도 생성형 AI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 궁런르보(工人日报). 중국, 생성형 AI 이용자 규모 두 배로 확대! 전문가가 해석(我国生成式人工智能用户规模实现翻一番！专家解读来了！). (25.10.24)

<https://baijiahao.baidu.com/s?id=1846303717188981792&wfr=spider&for=pc>

[기업분석] 딥시크, '시각적 압축' 기반의 신규 모델 오픈소스로 공개

지난 10월 20일,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했다.

깃허브(GitHub)에 따르면, 딥시크가 새롭게 공개한 모델의 이름은 'DeepSeek-OCR'로, 약 30억(3B) 파라미터를 갖춘 광학문자인식(OCR) 모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딥시크의 웨이하오란(Wei Haoran), 쑐야오펑(Sun Yaofeng), 리위쿤(Li Yukun) 연구원 3명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중 제1 저자인 웨이하오란은 과거 '제웨싱천(阶跃星辰, Stepfun)'에서 근무하며 '2 세대 OCR 시스템'으로 불린 GOT-OCR 2.0(arXiv:2409.01704) 개발을 주도한 바 있고, 해당 프로젝트는 깃허브에서 7,800 개 이상의 추천(Star)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그가 이번 딥시크의 OCR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로 평가된다.

딥시크는 이번에 공개한 DeepSeek-OCR 모델이 광학적 2 차원 매핑(optical 2D mapping)을 통해 본문 텍스트를 시각적 픽셀 형태로 압축하여 장문의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DeepEncoder 와 DeepSeek3B-MoE-A570M 디코더라는 두 가지 핵심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핵심 엔진인 DeepEncoder 는 고해상도 입력을 처리하면서도 낮은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압축률을 구현해, 적정한 수의 비주얼 토큰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실험 결과, 텍스트 토큰 수가 비주얼 토큰의 10 배 이내(즉, 압축률이 10 배 미만)일 경우 디코딩(OCR) 정확도는 97%에 달했다. 또한 압축률이 20 배에 이르러도 OCR 정확도는 약 60%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결과는 이 방법이 장문 컨텍스트의 압축과 대형언어모델(LLM)의 기억 ·망각 메커니즘 연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을 보여준다.

또한 DeepSeek-OCR 은 높은 실용적 가치도 입증했다. OmniDocBench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단 100 개의 비주얼 토큰만으로 GOT-OCR2.0(페이지당 256 개 토큰)을 능가했으며, 800 개 미만의 비주얼 토큰만으로 MinerU2.0(페이지당 평균 6,000 개 토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A100-40G GPU 한 장으로 하루 20 만 페이지(200k+) 이상의 LLM/VLM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만큼 높은 효율을 보였다.

딥시크가 제시한 접근법의 핵심은 비주얼 모달리티를 텍스트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문서 텍스트가 포함된 한 장의 이미지는 동일한 정보를 가진 텍스트보다 훨씬 적은 토큰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비주얼 토큰을 활용한 광학적 압축이 훨씬 더 높은 정보 압축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분석을 토대로, 딥시크는 기존의 LLM 중심을 관점을 넘어 비주얼언어모델(VLM)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그들은 기본적인 시각 질의응답(VQA)보다, 비주얼 인코더가 LLM의 텍스트 처리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딥시크는 OCR 작업이 시각과 언어를 잇는 중간 모달리티로서, 비주얼-텍스트 압축 패러다임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각적 표현과 텍스트 표현 사이에 자연스러운 압축-복원(encode-decode) 매핑을 형성함과 동시에, 정량화가 가능한 평가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DeepSeek-OCR이다. 이 모델은 고효율 비주얼-텍스트 압축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비주얼언어모델(VLM)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DeepSeek-OCR는 각각 하나의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엔드투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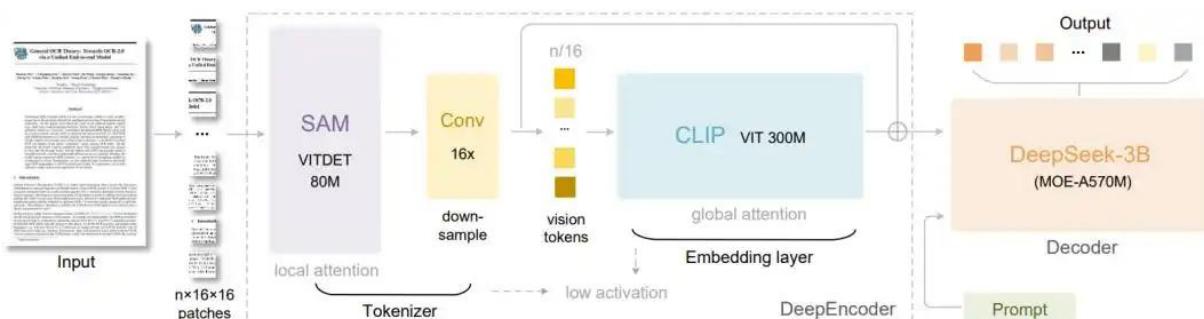


Figure 3 | The architecture of DeepSeek-OCR. DeepSeek-OCR consists of a DeepEncoder and a DeepSeek-3B-MoE decoder. DeepEncoder is the core of DeepSeek-OCR, comprising three components: a SAM [17] for perception dominated by window attention, a CLIP [29] for knowledge with dense global attention, and a 16 \times token compressor that bridges between them.

드 VLM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다.

DeepSeek-OCR의 혁신적 아키텍처는 비주얼-텍스트 압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응용 단계에서도 뛰어난 성능과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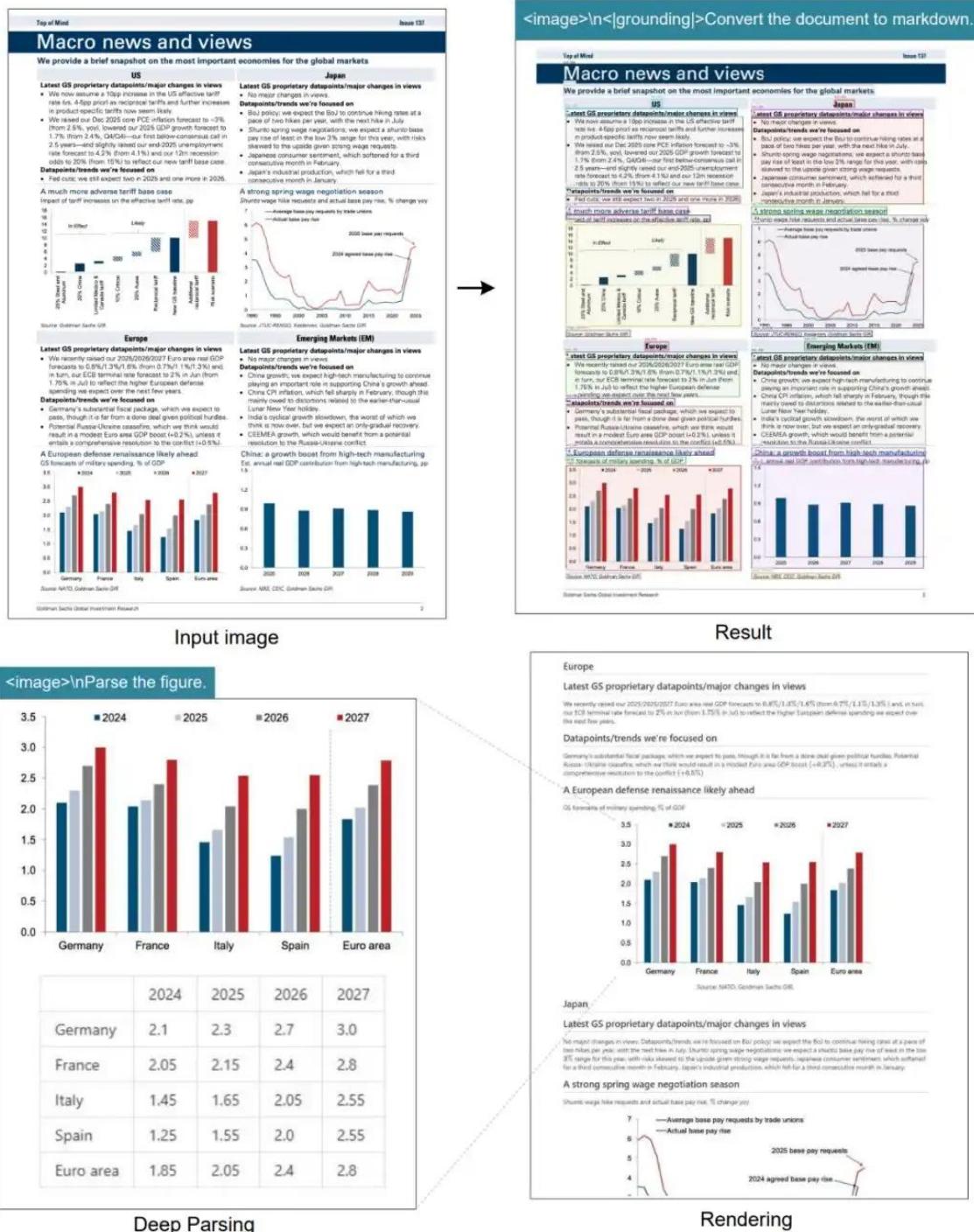


Figure 7 | In the field of financial research reports, the deep parsing mode of DeepSeek-OCR can be used to obtain structured results of charts within documents. Charts are a crucial form of data representation in finance and scientific fields, and the chart structured extraction is an indispensable capability for future OCR models.

이 모델의 핵심은 DeepEncoder 와 MoE 디코더로 구성된 독창적인 이중 컴포넌트 설계에 있다.

DeepEncoder 단계에서 딥시크는 SAM-base 의 세밀한 인식 능력과 CLIP-large 의 전체 맥락 이해 능력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였다. 비유하자면, 숙련된 고문서 복원가가 현미경으로 글자의 미세한 흔적을 살피면서(윈도우 어텐션), 동시에 광각 렌즈로 문서 전체의 구성을 조망하는 것(글로벌 어텐션)과 같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혁신적인 16 배 다운샘플링 메커니즘으로, 이는 300쪽 분량의 책을 20쪽으로 압축하면서도 핵심 정보의 97%를 그대로 유지하는 효율성을 구현했다는 의미다.

MoE 디코더는 혼합 전문가 구조를 적용해, 마치 전문 번역팀이 협업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언어나 문서 형식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6 명의 '전문가 모델'을 활성화해 협업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유동적 자원 배분 메커니즘 덕분에, 30 억(3B)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모델임에도 실제 운용 시에는 약 5.7 억(570M) 파라미터만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며, 그 결과 A100 GPU 한 장으로 하루 20 만 페이지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이는 약 100 명의 수작업 입력 인력의 업무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테스트 결과, DeepSeek-OCR 은 놀라운 학습력과 속도를 보여주었다.

단순한 PPT 문서의 경우 64 개의 비주얼 토큰만으로 내용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었고, 인식 속도 역시 사람이 문서를 훑어보는 수준에 근접했다.

복잡한 학술 논문을 처리할 때는 400 개의 토큰만으로 수식, 화학식 등 전문 기호를 정확히 재현했다. 다국어 혼합 문서 테스트에서도 아랍어와 싱할라어 등 특수 문자를 정확히 인식하였다. 또한 DeepSeek-OCR 은 범용 이미지 이해 능력도 일정 수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epSeek-OCR 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재무보고서를 곧바로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과거 병력 기록을 신속하게 디지털화할 수 있다. 또한 출판 업계에서는 고문서의 디지털화 작업 효율을 수십 배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 할 점은, DeepSeek-OCR 이 보여준 '시각적 기억' 능력이다. 이는 대형언어모델이 지닌 문맥 길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Figure 12 | We retain DeepSeek-OCR's capabilities in general visual understanding, mainly including image description, object detection, grounding, etc. Meanwhile, due to the inclusion of text-only data, DeepSeek-OCR's language capabilities are also retained. Note that since we do not include SFT (Supervised Fine-Tuning) stage, the model is not a chatbot, and some capabilities need completion prompts to be activated.

참고자료

▶ 관찰망(观察者网), 딥시크, '시각적 압축' 기반의 신규 모델 오픈소스로 공개(DeepSeek 开源新模型, 用视觉方式压缩一切). (25.10.24)

<https://baijiahao.baidu.com/s?id=1846497433952377212&wfr=spider&for=pc>

[기업분석] 유비텍(UBTECH) 적자 탈출 난항, R&D 투자 부담에 자금난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앞두고 '수익성 시험대' 올라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1호 상장사'로 불리는 유비텍(UBTECH)이 잇따라 대형 수주계약을 따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워커(Walker) 시리즈 휴머노이드 로봇은 현재까지 약 4.3 억 위안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비텍은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용 로봇과 교육용 로봇 사업이 실적을 떠받치고 있으나, 정작 산업용 로봇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교육용 로봇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수익성 압박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비텍은 4.39 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는 등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대규모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투자와 영업현금흐름의 장기적인 악화로 인해 유비텍은 현재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해 운영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대규모 주문을 확보했음에도, 2024년 한 해 동안 실제 납품량이 10대에 그치며 시장에서는 상업화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비텍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회사의 간판격 핵심 분야이지만, 양산화 실현과 수익화 검증이라는 두 가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주요 사업 부문이 수익성에 발목

유비텍(UBTECH)의 주요 사업에는 로봇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판매 및 통합 솔루션 제공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 유비텍은 6.21 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5%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소비자용 신제품 출시와 기존 체결 프로젝트의 납품에서 기인하였다.

유비텍은 자본시장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 자동화'를 성장 스토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을 지탱하는 것은 소비자용 및 교육용 지능형 로봇 제품군이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용 로봇 및 기타 하드웨어 장비 매출은 2.6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8.9% 증가하며 처음으로 회사 최대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수영장 청소 로봇, 잔디 관리 로봇, 고양이 자동 배변기 등 신제품 개발 및 고도화, 그리고 중국 국내외 이커머스 채널 확대에 힘입은 결과다.

또한 교육용 로봇 및 솔루션 사업은 2.4 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큰 사업 부문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48.79% 성장했으며, 이는 '청소년 AI 및 로봇 과학기술 혁신 교육기

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과 납품, 그리고 로봇 경진대회 생태계 확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 두 사업 부문이 기업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실적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유비텍(UBTECH)이 주력 사업으로 내세운 산업용 로봇 부문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30.9%에서 올해 상반기 19.3%로 급락했다. 물류용 지능형 로봇 및 솔루션 매출은 5,616 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기타 산업 맞춤형 지능형 로봇 및 솔루션 매출은 6,380 만 위안으로 29.8% 줄었다. 유비텍은 이에 대해 "상반기에는 새로운 응용 시나리오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관련 신제품은 하반기 출시 후 매출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표 1. 산업용 로봇 세부 매출 비중(상반기)

구분	2025년		2024년	
	매출	비중	매출	비중
교육용 로봇 및 솔루션	23,981.9 만 위안	38.6%	16,117.6 만 위안	33.1%
물류용 지능형 로봇 및 솔루션	5,616.3 만 위안	9.0%	5,956.2 만 위안	12.2%
기타 산업 맞춤형 지능형 로봇 및 솔루션	6,380 만 위안	10.3%	9,087.9 만 위안	18.7%
소비용 로봇 및 기타 하드웨어 시설	26,005.1 만 위안	41.8%	17,468.5 만 위안	35.8%
기타	162.7 만 위안	0.3%	92.7 만 위안	0.2%

한편, 교육용 로봇 및 솔루션의 매출총이익률 하락, 그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했던 산업용 로봇 부문이 아직 규모화된 매출을 내지 못한 점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유비텍의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3%p 하락한 35%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 압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 지난 5년 반 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전년 대비 18.5% 줄어든 4.39 억 위안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손실 규모는 큰 수준이다.

적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유비텍은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각각 2.24 억 위안, 1.85 억 위안으로 낮추는 등 지출을 줄였으며, 그 결과 비용률은 각각 36%, 29.8%로 떨어졌다.

보조금과 외부 투자에 의존한 '연명 경영'

2016년 춘절 특별 무대에서 540 대의 Alpha 1S 로봇이 공연을 선보이면서, 유비텍은 급격한 성장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아이플라이텍(iFlytek, 科大讯飞), 딩후이캐피털(鼎晖资本) 등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술과 자본 집약도가 극히 높은 분야로,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불가피하다.

올해 상반기 유비텍의 연구개발 비용은 2.18 억 위안에 달했으며, R&D 비용률은 전년 동기(46.7%)에서 35.1%로 하락했다. 다만 이는 주식보상 비용이 3,530 만 위안 줄어든 영향이 크며,

실질적인 투자 항목을 보면 직원 급여가 1,990 만 위안 증가, 소재 및 소프트웨어 툴 사용 비용도 720 만 위안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자체적인 수익 창출 구조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상장 이후 유비텍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단 한 차례도 흑자로 전환된 적이 없으며, 올해 상반기에 역시 3.71 억 위안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현금 유출'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보조금은 유비텍의 중요한 자금 보완 수단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관련 수입은 전년 동기 3,584.8 만 위안에서 458.5 만 위안으로 급감했다. 현재의 매출 규모로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비텍은 외부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2023년 12월 상장 이후 IPO를 포함해 총 6 차례의 자금 조달을 진행했으며, 누적 조달 규모는 약 54 억 홍콩달러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24.7 억 홍콩달러를 추가 확보했다.

올해 8월, 유비텍은 글로벌 투자기관 인피니 캐피털(Infini Capital)과 10 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인피니 캐피털은 유비텍에 시용 한도 기반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양측은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전·후방 산업에 공동 투자하고 중동 시장을 함께 개척할 계획이다. 이는 유비텍의 '현금 소모형 운영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시장 확장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자금 수요는 유비텍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직면한 공통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주문은 넘치는데 양산은 제자리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유비텍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월 초, 유비텍은 한 중국 대기업으로부터 2.5 억 위안의 체화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및 솔루션 주문 계약을 따냈으며, 이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최대 단일 수주 건으로 평가된다. 같은 달, 자회사인 유비텍 스마트물류 또한 텐치(天奇) 주식회사와 3 천만 위안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워커(Walker) 시리즈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계약 규모는 약 4.3 억 위안에 달했다.

산업용 로봇 주문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유비텍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2025년을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원년'으로 보고 있지만, 유비텍의 실제 납품 역량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023년 상반기까지 로봇 판매량은 겨우 10 대에 불과했고, 2024년에도 납품량은 10 대(매출 약 3,500 만 위안)에 그쳤다.

유비텍 경영진에 따르면, 회사는 당초 2025년 산업용 로봇의 주문량을 300~500 대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목표치를 500 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톈궁(天工)' 등 다기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약 800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유비텍이 양산 체제 구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시장에 의해 그 역량이 검증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5 세계 로봇대회에서 탄민(譚冕) 유비텍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일부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품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조립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양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에는 여러 현실적 난관이 존재한다"며, 높은 제조원가와 낮은 비용 효율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예를 들어 '워커 S2'는 현재 약 30 만 위안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15 만 위안 이하로 떨어져야 인건비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봇의 작업 효율 역시 아직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자오지차오(焦繼超) 유비텍 부사장 겸 연구원장은 "향후 6 개월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반 및 분류 효율을 인간의 40~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 신랑차이징(新浪财经). 유비텍(UBTECH) 적자 탈출 난항, R&D 투자 부담에 자금난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앞두고 '수익성 시험대' 올라(优必选难改亏损现状，研发投入与资金困局交织，人形机器人量产临考). (25.10.25)

<https://baijiahao.baidu.com/s?id=1846103651227527333&wfr=spider&for=pc>

[지역소개] 포양후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개요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이하 '국가자주혁신구'로 통칭)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 첨단산업개발구를 기반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자주 혁신을 위한 체제 메커니즘 개혁과 정책 선행 실험을 수행하는 시범 지역이다. 현재까지 국가자주혁신구는 총 23 곳에 달하며, 전국 21 개 성(자치구·직할시)를 포함해 66 개의 국가 첨단산업개발구를 포함하고 있다.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 청위(成渝) 지역 두도시 경제권 등 주요 국가 전략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체계적 배치, 중점 발전, 시범 확산, 선도적 견인을 발전 구도 체계로 두고 있다.



포양후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포양후(鄱阳湖)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이하 '포양후 자주혁신구'로 통칭)는 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 입지가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 지역은 2019년 8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 21 번째 국가급 자주혁신시범구로, 난창(南昌), 신위(新余), 징더전(景德鎮), 잉탄(鷺潭), 푸저우(撫州), 지안(吉安), 간저우(贛州) 등 7개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이하 '국가 첨단기술개발구')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도표 1.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연간 매출	11,370.90 억 위안	11,096.22 억 위안
순이익	745.84 억 위안	586.27 억 위안
총 산업생산액	10,768.79 억 위안	9,643.64 억 위안
총 수출액	1,423.83 억 위안	1,192.95 억 위안

포양후 자주혁신구는 산업기술 혁신 시범구, 녹색발전 선도구, 개방·조화 발전 선행구, 혁신 정책 제도 개혁 시험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장강(長江) 경제벨트와 생태 연계 발전의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이후, 포양후 자주혁신구 내 7개 국가첨단기술개발구는 3년 연속 순위 상승을 이어가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고, 자주혁신구의 종합적 역량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 포양후 자주혁신구는 장시성(江西省)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양후 자주혁신구는 승인 이후, 국무원이 지정한 '4개의 구(区) 1개의 거점(高地)'발전 전략에 맞춰, 중부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춘 역내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성(省) 전체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힘써왔다.

첫째, 기업의 혁신 주체 역할이 한층 뚜렷해졌다. 2024년 5월 기준, 등록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수는 1,700곳을 넘어섰고, 유니콘 기업과 가젤 기업 등 고성장 과학기술형 기업은 170곳 이상으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자격이 유효한 국가급 첨단기술 기업은 900곳 이상으로, 성(省) 내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둘째, 산업 클러스터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잉탄(鷹潭), 푸저우(抚州), 신위(新余), 징더전(景德鎮) 첨단기술개발구가 장시성(江西省) 제1차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목록에 선정되었다. 또한, 난창(南昌) 첨단기술개발구의 '디지털 벨리(數谷) 디지털경제 집적구', 징더전 첨단기술개발구의 '항공 디지털경제 산업단지' 등 5개 단지가 제3차 성(省)급 디지털경제 집적구로 지정되었다.

셋째, 주요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2019년 이후, 성급 이상 중점실험실, 기술혁신센터 등 혁신 플랫폼 100여 곳이 신규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와 창업혁신 공간 등 성급 이상의 창업지원 플랫폼(시범기지 포함) 역시 20여 곳 신규 설립되었다. 특히 장시성 최초의 성급 실험실인 '난창(南昌) 실험실'이 난창 첨단기술개발구에 설립되었다.

KIC 중국 뉴스

2025 한중혁신산업기술컨퍼런스 난징에서 개최



2025년 10월 28일, 중국장강삼각주국가기술혁신센터, 한국 KIST Innovation 및 중일한혁신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가 지원하는 '2025 한중혁신산업기술컨퍼런스'가 난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지혜의 융합, 건강한 미래의 시작"을 주제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탄소중립 기술 등 첨단 분야에 집중하여 한중 양국 간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협력의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의 13개 첨단 기술 혁신 기업이 참여하여 정밀의료, 스마트 제조, 그린 에너지, 디지털 헬스 등 분야에서 최신 기술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선보였다. 이번 교류회는 한중 양국이 과학 기술 자원, 산업 역량, 혁신 생태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양국이 국제 공동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탐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래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국 기업 13개사이다.

1. AidALL Inc. (AI 영상 인식 솔루션)
2. Mwdicaretec Co.,Ltd (이비인후과 초음파 수술 장비)
3. Speech NRT Co., Ltd (음성 장애 재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4. Pluto Labs, Inc. (AI 신약 개발 지원 플랫폼)
5. Altmedical Co., Ltd. (치매 예방 및 노화 방지 바이오 제제 개발)
6. ANDAZZI (비접촉식 상처 보호 장치)
7. OPTICHO Co., Ltd (피부 질환 광학-초음파 영상 진단 장비)
8. SAVE THE FARMS (바이오매스 탄소 자원화 기술)
9. A-Labs Ins.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환 장비)
10. THE ENGINEER (AI 생성형 설계 엔지니어링 플랫폼)
11. Double A Partners Co., Ltd (영상 AI 기반 이사 비용 산정 시스템)
12. Humelo Inc. (대화형 음성 AI 콘텐츠 생성 시스템)
13. Personal AI Inc. (프라이버시 주권 관리 애플리케이션)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허홍빈 부주임, 중국장강삼각주국가기술혁신센터 관리위원회 위원 겸 장쑤성 산업기술연구원 천닝 부원장, 중일한혁신협력센터 천쥔 사무총장, KIST Innovation 김상환 대표,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 등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각계 대표들은 이번 교류회의 전략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중국 혁신 생태계 구축의 최신 진전을 심도 있게 공유하고 개방적·협력적·포용적인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공동 비전을 표명했다.

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 양국 혁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은 단순한 기술적 상호보완을 넘어, 양국의 산업 고도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공유와 역량 시너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제 혁신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혁신 체계의 깊은 융합을 촉진하며, 더욱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며, 함께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KIC 중국 GSF 포럼 개최

KIC CHINA

2025GSF 웨강아오대만구 과학포럼 한국 혁신기업 로드쇼 K-Demo Day (수소산업)

주최/주관기관 (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KHNES), 수소지식그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 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중) GSF(중국대만구 과학포럼) 위원회, 광동성과기관리연구회, 광한중(광동)과학기술협력전환촉진센터, 광동과학기술혁신감시연구센터, 광동전문진발전촉진회, 포산남해수소에너지산업단지

후원기관 (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 광동성과학원, 광동성생산력촉진센터, 광동성과학기술금융촉진회

예정 일시 2025년 12월 7일(일) 13:30-18:00 (IR행사)
2025년 12월 8일(월) ~ 9일(화) (산업시찰)

장소 중국 광저우 · 난사 국제전시센터

프로그램 배경
웨강아오대만구과학포럼(GSF)은 '일대일로' 국제과학기구연맹(ANSO)이 발족에 따라 중국과 기부와 광동성인민정부가 공동주최하는 국가급 과학기술포럼이며 국제 과학기술 교류, 성과전시 및 선두적 과학혁신의 주제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에서 최고급 국제과학포럼으로 성장하였다.
2025GSF포럼은 12월 6~8일 기간 광저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KIC중국은 광동성과학기술청, 광동성과기관리연구회와 협력하여 '한국혁신기업로드쇼K-Demo Day' 분과포럼을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한중 양국의 정부관계자와 과학기술 기업들을 초청하여 한중 수소산업 혁신기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참가신청 2025년 9월 8일(월) ~ 2025년 10월 26일(일)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ying@kicchina.org

신청코드

내용	비고
9/8(월) ~ 10/26(일)	참가기업 모집
10/27(월)	1차 서류 심사
10/29(수)	온라인 심사
10/30(목)	최종 참가기업 발표

기획모집 공고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2월7일(일)	오전	인천T2-선전T2, KE827(08:15-11:25)
	오후	GSF 포럼_한국혁신기업로드쇼 K-Demo Day
	저녁	GSF 포럼_한중기업가 네트워킹
12월8일(월)	오전	광동성과학기술청 및 광동성과학원 미팅(광저우)
	오후	포산고신구 수소산업단지 방문
	저녁	포산 수소관련 기업가/투자자_한중 네트워킹
12월9일(화)	오전	중국 수소기업(1~2개사) 방문&교류
	오후	중국 수소기업(1~2개사) 방문&교류
	저녁	광동성 수소기업가_한중 네트워킹
12월10일(수)	오전	광저우-인천

* 주 후변동 가능성 있음

* 문의: +86-10-6780-8840/info@kicchina.org

China·夢 China·路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행사 모집 공고

china·夢 China·路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모집기간: 2025.10.13.~2025.10.27.

심의기간: 2025.10.27.~2025.11.03.

운영기간: 2025.11.03.~2025.12.31.

모집대상

인큐베이션

- 중국 현지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기술위주로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가 혹은 중국법인 설립 3년 미만 현지 한국 기업가 (한국기업 지분 포함)

엑셀러레이션

- 중국에 법인 설립 후 1년이 넘어 MVP를 보유하거나 매출이 최소 1년 이상 발생한 기업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QR코드 스캔 후 KIC중국 홈페이지
- 제출: (jeetotheyun@kicchina.org)로 PDF파일 전송
- 문의: ☎+86-10-6780-8840 / +82-070-4084-1234

지원혜택

창업교육

중국 창업 교육, 북경대 ‘전국반’ 서류 면제

투자유치

중국 창업대회 참가, K-Demo Day 네트워킹 지원

법인설립

법무법인 컨설팅 비용 및 법인설립 관련 비용 지원

재무지원

재무/세무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

MVP 개발,BM 수립, 운영 전략 및 멘토링 지원

특허출원

상표/특허 출원 지원

네트워킹

중국 측 파트너 및 투자자 소개

기타

통번역 서비스, 보고서 의뢰, 관련 산업의 중국 하이 테크존 사업 매칭 등 지원

服务号 · 在华韩国创新中心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2025 홍콩 국제 생태 엑스포	2025.10.28-2025.10.31	홍콩	환경보호
2025년 제 29 회 아시아 국제 전력 전송 및 제어 기술 전시회	2025.10.28-2025.10.31	상하이	에너지
2025 아시아 국제 물류 기술 및 운송 시스템 전시회	2025.10.28-2025.10.31	상하이	물류
2025년 제 9 회 국제통신정보시스템학회(ICCIS 2025)	2025.10.31-2025.11.02	선전	통신정보
2025년 선전 국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무역 박람회	2025.11.03-2025.11.05	선전	무역
2025년 제 106 회 중국 전자박람회	2025.11.05-2025.11.07	상하이	전자
2025DMP 대만구 산업 박람회	2025.11.05-2025.11.08	선전	산업
2025 제 8 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2025.11.05-2025.11.10	상하이	무역
2025년 제 4 회 장강 삼각주 국제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 박람회	2025.11.06-2025.11.08	안칭	자동차
제 24 회 중국 국제(서부) 광전자 산업 박람회 2025	2025.11.06-2025.11.08	청두	에너지
제 7 회 정보 및 컴퓨팅 분야 최전선 기술 국제 컨퍼런스(I CFTIC 2025)	2025.11.07-2025.11.09	칭다오	통신정보
제 6 회 인공지능 및 컴퓨터공학 국제 학술대회 (ICAICE 2025)	2025.11.07-2025.11.09	충칭	인공지능
제 5 회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통신 국제 학술대회(ICAI RC 2025)	2025.11.07-2025.11.09	샤먼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통신
제 5 회 스마트 교통 및 도시 공학 국제 학술대회 (STCE 2025)	2025.11.07-2025.11.09	난징	교통

KIC 중국 주간 중국 창업

www.kicchina.org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행처: 글로벌 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김종문

전화: +86-10-6780-8840

메일: info@kicchina.org